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8월 3주~8월 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○ 폴란드, 2025년 2분기 GDP 3.4% 성장, 유럽 내 최고 수준(8.13)

-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, 2025년 2분기 국내총생산(GDP)은 전년 동기 대비 3.4% 증가하며, 1분기(3.2%)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 지속
- 전기 대비 성장률은 0.8%, 유럽 국가 중 분기별 성장률 최고
- 투스크 총리는 "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"라고 언급,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
- 도만스키 재무장관은 폴란드 경제가 "예외적인 회복력"을 보이고 있으며, 향후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
- 폴란드 중앙은행은 2025년 연간 성장률을 3.6%로 예측,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3.1%, 2.5% 성장할 것으로 전망
-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.9%로, 2023년의 0.1%에서 크게 개선되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 시사

○ 폴란드-독일 교역, 2025년 상반기 900억 유로 돌파(8.12)

- 독일 동방경제협회에 따르면, 2025년 상반기 독-폴 간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.4% 증가한 900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 기록
- * 독일 동방경제협회(Ost-Ausschuss) : 독일 기업의 동유럽, 중앙아시아 등 29개국 진출을 지원하는 주요 민간 경제단체로, 약 35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정보 제공, 네트워킹, 정책 자문 등을 수행
- 독일의 對폴 수출은 49.4억 유로(5.7%↑)로, 중국(41.4억 유로)을 제치고 증가세 지속, 폴란드의 對독 수출도 2억 유로(5.2%↑) 증가
- 폴란드는 프랑스, 미국, 중국,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의 5대 교역국으로 부상
- 독일 연방 통계청은 국경 검문이 교역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

평가하며, 화물 운송 간소화 절차를 통해 물류 흐름 안정 유지

- 같은 기간 독일의 對우크라 교역은 30% 증가(46억 유로), 체코와는 3.4% 증가(578억 유로), 반면 헝가리(-3.7%), 러시아(-13%)와의 교역은 감소
- 러시아를 대체하는 신규 교역국으로 세르비아, 크로아티아 등이 부상

○ 폴란드 7월 물가상승률 3.1%, 6월 대비 둔화세 지속(8.14)

- 7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전년 동월 대비 3.1% 상승
- 6월 상승률은 4.1%, 5월은 4.0%로, 3개월 연속 상승률 하락세 기록
- GUS는 2025년 CPI 산정 시 반영되는 소비 항목 가중치를 조정
- 정부는 6월 채택한 2026년 예산안 기초지표에서 2025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3.0%로 설정
- 중앙은행은 7월 발표한 '인플레이션 보고서'에서 2025년 3.9%, 2026년 3.1%, 2027년 2.4%로 전망
- 당분간 완만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, 중앙은행과 정부 간 물가 전망에는 다소 차이 존재

○ 2025년 2분기 폴란드 평균 임금 전년 대비 8.8% 상승(GUS, 8.8)

-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, 2025년 2분기 평균 월급은 8,748.63즈워티(약 335만원)로, 전년 동기 대비 8.8% 상승
- 2025년 1분기 대비로는 2.4% 하락, 계절 요인 반영된 결과
- 7월 기업 부문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9% 상승
-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.1%, 실질임금 증가세 유지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우크라이나 개인 개발용 토지 매물 2025년 상반기 39% 증가(8.7)

- 2025년 6월 기준, 개인 주택 개발용 토지 매물 공급은 2024년 말 대비 39% 증가하며 거래 활동도 활발해지는 추세

- 상반기 가격은 흐리브나 기준 소폭 상승, 달러 기준 큰 변동 없음
-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안전성이 높은 지역에서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현상 두드러짐
- 2025년 봄 기준 100㎡당 평균 가격은 약 25백달러로, 2024년 말 대비 소폭 상승
- 키이우는 100㎡당 11,000~12,000 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, 오데사 지역은 55~56백달러로 2위
- 서부 트란스카르파티아(23~24백달러), 르비우(약 22.6백달러) 등 높은 가격대 유지
- 반면, 전쟁 인접 지역인 체르니히우·수미·폴타바 등 북부 및 중부 일부 지역은 100㎡당 8~9백달러로 저렴한 편
- 하반기에도 완만한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추세 지속 전망

○ 카자흐스탄 사모펀드, 우크라 건설사 'Watzenrode' 인수(8.7)

- 카자흐스탄의 Brickstone Private Equity Fund CEIC Ltd.가 우크라 건설사 Watzenrode 지분 100%를 인수,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
 - 새 소유주는 중앙아시아 최대 건설그룹과 연계되어 있으며, 인수 이후 Watzenrode는 우크라이나 내 최대 자본력 보유 건설사로 부상
 - Watzenrode는 설계·시공·엔지니어링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, 체르노빌 원전 차폐물 사업 하도급, NEFCO*와의 보로덴카 상수도 개보수, UNBROKEN** 클리닉 확장공사 등 다수 프로젝트 수행
- * 북유럽 환경금융공사(Nordic Environment Finance Corporation) : 북유럽 5개국(덴마크, 핀란드, 아이슬란드, 노르웨이, 스웨덴) 정부가 공동 출자한 국제 금융 기관이며, 동유럽, 발칸반도,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탄소 중립, 에너지 효율, 물 폐기물 관리 개선 등 환경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 및 용자를 지원함
- ** UNBROKEN : 우크라이나 르비우 시가 운영하는 국가 재활 프로젝트로, WHO, NEFCO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NGO 단체들과 전쟁 피해자(군인·민간인)의 신체·정신 재활 치료를 지원함
- 2024년 매출은 23.69억(약 880만 달러)으로 전년 대비 130% 증가, 순이익은 1,380만(약 33.5만 달러)으로 29% 증가

- 풍부한 자본력과 실적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의 핵심 사업자로 부상할 전망
- 우크라 곡물 수출, 흑해 항만 중심으로 재편, 오데사항 접안시설 재건(8.15)
 - 볼린(Volyn) 지역의 농산물 기업 Volyn-Zerno-Produkt(Vilia)는 최근 폴란드 그단스크 항만의 임차 계약을 종료하고, 곡물 수출 경로를 흑해 항만 중심으로 전환
 - Vilia는 현재 폴란드 경유 수출을 일부 유지하고 있으나, 주된 수출 경로는 흑해로 변경되었으며, 기존 그단스크를 통한 발트해 수출은 수익성이 낮아 지속 어려운 상황
 - 자사 내 터미널에서는 현재 스크랩, 광물 비료, 디젤 연료 등 대체 화물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, 곡물은 주 2~3회 철도 운송을 통해 출하 중
 - 우크라이나 항만청(USPA)은 오데사항 내 7번 접안시설 재건을 위한 입찰을 공고, 총사업비는 539백만 흐리브냐(약 182억원) 규모
 - 사업 완료 시 연간 2백만 톤 화물 처리능력 확보 및 연 1억 흐리브냐 이상의 추가 수익 창출 기대
 - 우크라이나 물류업계 협회는 항만 내 비료 환적 금지 조치의 재검토를 당국에 요청, 현행 규제가 지속될 경우 물류 비용 증가로 기업에 10억 흐리브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
- 우크라이나, 2026년 예산 부족 규모 80~190억 달러 전망(8.19)
 - 헤트만체우 재무위원장은 전쟁이 지속될 경우 비관적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, 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방비를 크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
 - 이 같은 상황 반영해 IMF 기존 협약 재검토 및 새로운 프로그램 협상 추진 중
 - 2026~2027년 국방비 부담 지속이 예상되며, 두 해에 총 7백억 달러 추가 재정 필요, 이 중 2026년은 80~190억 달러 부족분 존재

-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"2026년 예산안은 전쟁 지속을 전제로 작성할 것"이라며 외부 재정지원 450억 달러 필요 언급
- 현재까지 100억 달러 규모 지원이 미확보 상태, G7·EU·IMF와 협상 진행 중
- **美-우 재건투자기금 9월 출범, 1호 투자처로 리튬광산 검토(8.19)**
 - 소볼레우 경제장관은 '미국-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' 이사회의 첫 회의가 2025년 9월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힘
 - 회의에서 기금 운용을 위한 초기 기술적 결정 발표 및 투자 유치 대상 프로젝트 제안 계획
 -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초기 출자 합의 완료, 향후 12개월 투자 가능 프로젝트 목록 준비 중
 - 9월 중 대규모 미국 대표단 방우 예정, 제안된 투자 프로젝트 실사 진행 계획
 - 키로보흐라드주 도브라 리튬 광산 개발권 관련 생산분배계약 (Production Sharing Agreement, PSA) 입찰 절차를 12월까지 개시 예정
 - 도브라 광산 프로젝트는 재건투자기금의 1호 투자 대상지로 유력, 투자자는 광물 탐사·채굴 비용 부담 후 산출물 일부로 보상받는 구조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- **나브로츠키 신임 대통령, 주권 수호·불법 이민 반대·유로화 도입 거부 천명(8.6)**
 - 8월 6일 취임 연설에서 국가 주권 수호, EU 통합 심화 반대, 불법 이민 및 유로화 도입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며, 초당적 대통령으로서 국민 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 강조
 - 前 국가기억연구소(Instytut Pamięci Narodowej, IPN) 소장 출신, 보수적 가치·안보·정체성 강화를 국정 핵심 방향으로 제시

- EU 탈퇴는 지양하되 "주권을 잃지 않는 EU 내 폴란드"를 지향, 즈워티 유지, 정년 연장 반대 입장 명확히 함
- 대외 안보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및 NATO 내 역할 확대, EU 내 최대 규모 폴란드군 육성 추진, B9* 및 동·북유럽과의 협력 확대

* B9(Bucharest Nine) : 동유럽 9개국 안보 협의체로,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NATO 내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, 정기적으로 국방·외교 장관 회의 및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 안보 전략을 논의

- 헌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며, 2030년까지 신헌법 마련 위한 대통령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 발표
- 사법 개혁 관련, "판사는 국민을 섬기는 존재"라며 법치주의 수호 및 특정 판사 임명 거부 의지 표명
- 전통 가치 기반 교육, 시민 정체성 강화, CPK 원안 복원 및 경제 성장 거점화 추진 약속
- 8월 중 투자·재정 관련 국무회의 소집 계획 발표, 총리 및 각료와의 협력 강조, 전임 대통령에 감사 표명

○ Grupa Azoty, Polimery Police 자금 안정화 협정 9월 2일까지 연장 (8.7)

- Grupa Azoty Polyolefins와 금융기관 간 체결된 자금 조달 안정화 협정이 2025년 9월 2일까지 연장됨
- 협정 참여 금융기관은 Alior Bank, BGK, BOŚ, PKO SA, BNP Paribas, EBRD, Haitong Bank, ICBC, mBank, PZU 등 총 15개사
- 이번 연장에 따라 Grupa Azoty 및 자회사 Police SA에 대한 최대 105백만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도 동일 기한까지 집행 예정
- Polimery Police는 연간 폴리프로필렌 43.7만톤, 프로필렌 42.9만 톤 생산 능력을 보유하며, 해상 가스 터미널을 포함하고 있음
- 총투자액 15억 유로 규모로 폴란드 화학산업 최대 프로젝트이나, 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지속

○ GA Polyolefins, Polimery Police 관련 1억 752만 유로 보증금 수령(8.11)

- GA Polyolefins는 Polimery Police 프로젝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따라 Liberty Mutual Insurance Europe SE에 보증을 청구, 107.52백만 유로(약 1,735억원)의 보증금을 수령
- 해당 보증금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(HEC)의 계약 미이행에 근거한 것으로, 최대 보증 한도 전액을 수령
- 보증기관 측은 향후 HEC의 이의 제기 시 일부 반환 청구 가능성 언급
- 본 프로젝트는 2019년 5월 체결된 EPC 계약에 기반하며, HEC는 프로판탈수소(PDH) 및 폴리프로필렌(PP) 플랜트의 설계·시공·성능 보증을 담당
- 총투자액 약 15억 유로 중 12억 유로는 시공비·기술 사용료·준공 전 이자비용 등 자본적 지출로 구성됨

○ GA Polyolefins, HEC에 Polimery Police 계약 위약금 청구(8.14)

- GA Polyolefins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(HEC)과의 EPC 계약을 해지하고, 약 111.8백만 유로규모의 위약금 부과
- 계약 해지 사유는 핵심 마일스톤 지연, 시험운전 미완료, 지연 벌금 상한 도달, 쌍방 간 청구에 대한 협상 결렬 및 'Standstill 협약' 종료 등
- 해지 통보 및 위약금 청구서는 2025년 8월 14일자로 HEC에 전달
- GA Polyolefins는 8월 11일 기준 HEC의 부실 이행에 따른 보증금 107.52백만 유로 수령

○ 폴란드, F-16 전투기 현대화 목적 40억 달러 계약 체결(8.13)

- 폴란드는 다목적 F-16C/D Block 52+ 전투기 현대화를 위해 4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, 모든 작업은 북부 도시 비드고슈치에서 진행될 예정
- 美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승인한 이번 사업은 최대 73억 달러 예산 범위 내 F-16을 F-16V(Block 72)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함

- 현대화 작업은 전투기 자체뿐 아니라 레이더, 통신 장비 등 핵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, 최신 F-35 기술도 일부 도입
- 폴란드는 32대의 신형 F-35 전투기 도입을 대기 중, 조종사들은 미국에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훈련을 시작
- 국방장관 코시냐크-카미시는 이번 현대화로 폴란드가 NATO 내 상위 3개국 군사 역량 보유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

○ 나브로츠키 대통령, CPK 경영진 요건 강화 및 PiS 구상 복원 법안 제출(8.8)

-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CPK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을 폴란드 하원에 제출, 과거 PiS 정부*가 수립한 철도망 계획 등 핵심 구상을 복원하는 내용을 포함

* PiS(Prawo i Sprawiedliwość) 정부 : 일반적으로 폴란드의 우파 정당인 법과 정의당(PiS)이 집권하던 시기의 정부를 의미하며, 2015~2023년 집권기를 지칭, 해당 시기에 대규모 인프라 계획, 사법 개혁, 복지 확대(아동수당 등)가 추진됨

- 법안은 약 2,000km의 신규 철도 노선 건설과 고속철도 운영 속도 250km/h 적용을 명시하며, 바르샤바 쇼팽공항은 2032년 말까지 폐쇄, CPK는 2032년 개항을 목표로 함
- CPK 운영사 경영진 과반수는 5억 즈워티 이상 규모 인프라 투자 또는 자금조달 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, 감사이사회 전원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
- 감사이사회 구성에 대통령, 재무장관, 국방장관, 교통장관, CPK 정부 조정관이 각각 1명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실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제기
- 대통령실은 이러한 요건 강화가 공항·철도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전략적 감독 강화를 위한 것이라 설명하며, 법안 목적은 "이행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감독 확보"라고 설명
-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질적 개선보다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고 평가, PiS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조차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

지적

- CPK 정부조정관 마치에이 라섹은 해당 법안이 그동안의 CPK 추진을 전면 부정한다고 언급하며, 당시 인력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
- 현 집권당 연합(시민연합, PSL, 폴란드2050, 신좌파)이 의회 과반을 점유한 상황에서,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, 정치적 상징성과 견제 목적이 크다는 분석

○ 폴란드 NECP에서 SMR 제외, 에너지장관은 “포함될 것” 강조(8.19)

- 7월 말 공개된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(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, NECP) 초안에서 소형모듈원자로(SMR) 관련 조항이 삭제, 기존 2024년 10월 버전에는 SMR 개발 조건 보장이 포함
- 모티카 에너지부 장관은 SMR이 NECP 최종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로드맵 마련과 업계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, 10월 국무회의의 제출이 목표라고 언급
- 초안 작성은 기후환경부가 주도하였으며, SMR 제외 배경으로는 상용화 사례 부족 및 기술 불확실성이 지목, 이로 인해 SMR 개발에 필요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 지연 우려
- Orlen-Synthos의 원자력 합작사 OSGE는 NECP 초안에 따른 SMR 배제에 반발, 에너지부 장관에게 “향후 정책 문서에 SMR 기술 반영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”고 경고하는 공식 서한 전달
- 캐나다는 GE-히타치 기술 기반의 첫 SMR 건설 시작, 폴란드도 BWRX-300 기술을 적용한 첫 SMR 건설을 2030년대 초 목표로 추진
- 모티카 장관은 SMR이 난방 등 여러 분야에서 폴란드의 에너지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이며, 국내 기술 적용비율이 해상풍력보다 높을 수 있다고 강조
- SMR과 대형원전 외 과도기적 역할로 가스·석탄 발전도 일정기간 유지될 전망

○ 체코 RegioJet, 9월부터 바르샤바-크라쿠프 노선 진출(8.18)

- 체코 철도운송업체 RegioJet이 9월 18일부터 바르샤바-크라쿠프 간 열차 운행을 시작, 전체 운행은 2026년부터 본격화될 예정
- RegioJet의 진입으로 PKP Intercity가 장기간 독점한 주요 수익 노선 경쟁이 본격화, 체코 언론은 PKP의 독점 체제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
- 탑승권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, RegioJet은 폴란드 내 최대 500명 규모 고용 계획도 함께 발표
- RegioJet은 그간 폴란드 장거리 국내 노선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으나, 현재까지는 프라하-프세미실 국제노선만 운행
- 체코 언론은 폴란드 당국이 비경쟁적인 시간대만 배정해 진입을 제한했다고 보도
- 이번 진출은 폴란드 철도 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됨

④ **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**

○ IFC, 우크라이나 총 3.5억 유로 규모 인프라 펀드 조성 참여(8.7)

- 국제금융공사(IFC)는 총 3.5억 유로 규모의 'Amber Dragon Ukraine Infrastructure Fund I' 조성에 최대 40백만 유로 출자 계획발표
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과 유럽투자은행(EIB)도 각각 60백만 유로, 40백만 유로 출자 예정
- 해당 펀드는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 재건 및 현대화를 목표로 하며, 에너지 전환, 디지털 인프라, 교통·물류 분야를 중점으로 투자할 예정
- IFC 이사회는 본 프로젝트를 9월 30일 심의할 예정이며, 프랑스 등 보증국의 참여 하에 ERA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백만 유로 규모의 손실보전 보증이 제공될 계획
- 첫 투자 프로젝트는 URC 2025에서 발표된 'Power One' 분산 에너지 사업으로, EBRD가 21.1백만 유로 투자 계획

○ EU, 우크라이나 공동 방위 프로젝트 대출 프로그램에 1,270억 유로 신청 접수(8.7)

- EU 신규 방위 대출 프로그램 SAFE(Security Assistance Facility for Europe)는 총 1,500억 유로 규모로, 공동 방위 역량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목표로 설계
- 출범 초기에는 관심이 저조했으나, 단기간 내 18개 회원국에서 약 1,270억 유로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며 수요 급증
- 신청된 자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탄약 및 미사일 공동 구매에 사용될 예정
- 국가별 신청 규모는 폴란드가 최대인 450억 유로이며, 프랑스(150~200억), 이탈리아(150억), 리투아니아(87.6억), 에스토니아(36억), 불가리아(35억), 그리스(12억), 스페인(10억) 순
- 루마니아(100억), 벨기에(110억)는 신청을 검토 중, 체코, 라트비아, 포르투갈, 크로아티아, 헝가리는 세부 내역 미공개
- 키프로스, 핀란드는 신청 규모 조율 중, 오스트리아, 슬로베니아, 덴마크는 참여 여부를 아직 확정되지 않음
- 독일, 룩셈부르크, 스웨덴 등 국가는 대출은 불참하지만, 공동 방산 조달에는 관심을 표명

○ 美-우 광물 협정 일환, 서부 유전·가스전 개발 투자자 공개 모집 추진(8.15)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美-우 광물 협정의 일환으로 서부 지역 Svichanska, Mezhyhirska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투자자 모집 계획을 발표
- 해당 지역은 리비우, 이바노프란키우스크, 체르니우치 주에 걸쳐 있으며, 생산분배계약(PSA) 입찰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
- 미국 측 파트너에게 생산물 우선 매입권이 부여, 타국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포함되었음
- 이번 조치는 美-우 간 전후 재건 투자펀드 구성에 관한 협정의

일환으로 추진되며, 우크라이나 총리는 관련 정부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었음을 확인

- 아울러 경제부 및 국가지질광물청에 전략적 자원 보유지 허가 보유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지시, 광물 자원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도 병행 추진

○ 푸틴, '공중 휴전' 제안, 우크라 측 "기만적 전략" 경계(8.7)

-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상호 합의 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중단하는 '공중 휴전'을 제안했으나, 전면 휴전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
- 러시아는 전선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지상전은 지속할 방침으로, 전쟁 종식에 대한 논의에는 선을 긋는 모습
- 해당 제안과 관련해 美 국무부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,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
- 국무부 대변인 브루스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평을 유보하면서도, 미국이 2차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
-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 산하 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이 코발렌코 소장은 러시아의 제안을 자원 재정비와 제재 회피를 위한 전술적 기만으로 해석
- 그는 지상전을 계속하면서 제재만 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, 전면 휴전과 정상급 회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제안은 기만에 불과하며, 즉각적인 제재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

○ 독일, 우크라에 5억 달러 규모 미국산 군사 장비 지원 발표(8.14)

- 독일 정부는 미국 재고 물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 및 탄약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
- 본 지원은 NATO의 'PURL(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)' 이니셔티브 하에 이뤄지며, 우크라이나의 전술적 요구 충족이 목적
- 워터 NATO 사무총장은 독일의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 방어 역량

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

- 독일은 유럽 내 최대 군사지원국으로, 이번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주권 수호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재확인
- NATO에 따르면, 네덜란드와 덴마크·노르웨이·스웨덴 공동이 PURL 체계 하에 각각 약 5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발표

○ 트럼프-푸틴 알래스카 회담, 특별한 합의 없이 종료(8.15)

-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트럼프와 푸틴 간 회담은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, 트럼프는 회담이 "매우 잘 진행됐다"고 평가, 푸틴은 차기 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자고 제안
- 트럼프는 양측이 영토와 안보 보장을 통한 전쟁 종식 방안을 위한 합의점에 도달하였으며, 평화협정 체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, 이제 책임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넘어갔다고 언급
- 푸틴은 도네츠크·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요구하며, 추가로 헤르손·자포리자 지역에서 전선을 동결할 것을 요구
- 이 외에도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주권 인정, 일부 대러 제재 일부 해제,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금지, 러시아어 공식 지위 인정 및 러시아 정교회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
- 도네츠크·루한스크 지역의 러시아 귀속 요구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명확히 거부한 바 있음
- 트럼프는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2차 정상회담을 성사해 평화 협정을 이어가는 데 있다고 밝힘

○ 트럼프·젤렌스키·유럽 정상들,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 논의(8.18)

- 트럼프, 젤렌스키 및 유럽 주요 지도자들이 백악관에서 회동 및 전쟁 종식 방안을 협의
- 논의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및 영토 교환 가능성 등 평화 협상 관련 사안
- 트럼프는 회담이 '누가 무엇을 할지'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설명, 푸틴과의 3자 회담 가능성도 언급

-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, 전쟁 종료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 선거를 실시할 의사를 내비침
- 튀터 NATO 총장은 트럼프가 안보 보장을 지지한 점을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돌파구로 평가
- 스타머 영국 총리,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,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은 유럽 안보 전반과 중재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, 전쟁 조기 종식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
- 과거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 갈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, 이번 회담은 양측 간 긴장 완화와 협상 여지 모색의 계기로 평가됨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9(210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5.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, 사업주관 거래조건 협의 등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
○ (주요동향) EPC 관련 보증 회수(107백만유로)로 중재절차 착수 예상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10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	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	KIND LH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	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	KIND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	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	한국 공항공사	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	환경산업 기술원	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	수자원 공사	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·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5.10월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)